

# 증가문화 살린다면서... 전통한옥 흥물 방치

###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담양 고정주 가옥 훼손 심각 실질적 정비예산 책정 필요

#. 슬로시티인 담양군 창평면 삼지내마을을 훈강 고정주 가옥, 전남도 지방민속문화재인 이 고택은 건축물이 오래된데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잡풀이 우거진 채 흥물로 변했다.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은 5일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남도문에 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증가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보존 가치가 높은 고택 문화재는 허물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일보 8월4일자 1면〉

대표 사례로 담양 창평의 '훈강 고정주 가옥'을 들었다. 이 고택은 지난 2008년 전남도 지방민속문화재 제42호로 지정됐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건축물 훼손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주변은 잡풀이 우거져 흥물로 전락했다. 고택 안내판도 심하게 부식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방민속문화재 제42호인 담양군 창평면 '고정주 고택'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흥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박철홍 전남도의원 제공〉

박 의원은 "전남도가 한옥 건축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도내 전통한옥과 고택 보존·관리에는 소홀하다"며 "유명 관광지인 슬로시티 내 고택 문화재의 관리가 이런 상황인데 다른 지역의 고택 관리가 더 엉망일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도문에 르네상스 선도사업으로 증가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는 실태조사에만 연연해 한다는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실태조사와 함께 중

가와 전통한옥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한옥을 관리하는 종손들은 고령인데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보존관리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남도의 증가(종택) 보수·정비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증가 정비 사업 예산으로 올해 82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중 도비 2400만

원, 시군비 14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4400만원은 증가 부담이다.

박 의원은 "도비 부담금 2400만원은 전남도가 한옥 한채 있는데 지원하는 경비만 해도 작은 규모"라며 "전통한옥의 보존관리에 행정적인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명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현실적인 예산을 책정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도·국민의당, 9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당과 전남도가 예산·정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갖는다.

전남도는 오는 9일 오전 서울 컨벤션 호텔에서 국민의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6일 밝혔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당으로서는 호남 민심에 대한 구애의지를 거듭 확인시키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용호 정책위원회 의장, 황주홍 예결위 간사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다.

국민의당은 지난 3일에는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전남도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건설, 벌교~주암 3공구 국도 확장,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건설 등 14건 사업의 예산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우, 광주 연구개발 특구 확대 지정,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광양항 항만기반시설 확충 등 12건의 지역현안 정책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예산 심의 대응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현안 사업과 관련해 해당 국회 상임위 등을 꾸준히 설득해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된대로 착수해야"

### 광주전남연구원 논문

정부가 추진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미 준비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조상필 선임연구원은 6일 '광전리더스 IN·FO'에 발표한 연구논문 '2017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선정방향에 따른 대응 전략'을 통해 "사업의 시급성에 기반해 추진체계의 구축과 사업부지의 확보가

가능성 등 '준비된 사업'부터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상필 선임연구원은 "뉴딜사업은 준비된 사업, 특색 있는 사업, 다양한 국가시책 반영, 부처 연계사업, 건축디자인 특화, 지속 가능한 재생 등 6가지 방향에 따라 선정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지역의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업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방도시공사, 광주전남연구원, 지역문화재단 등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조직·단체·법인·공기업 등이 중간 지원조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금고 NH농협은행·광주은행 재선정

### 연 8조 규모 2020년까지 약정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전남도 재정을 운영할 금고로 NH농협은행과 광주은행이 재선정됐다.

전남도는 6일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NH농협은행을 제1금고로, 광주은행을 제2금고로 선정했다.

금고 약정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이다. 제1금고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을 맡고, 제2금고 광주은행은 6개 특별회계와 16개 기금을 담당한다.

올해 전남도 예산 규모(2회추경)는 일

반회계 6조1243억원, 특별회계 7202억원, 기금 1조8800억원(지역개발기금 6047억원)으로 총 7조9325억원이다.

금고지정위원회에서는 신청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 사회 및 도와의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전남도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1순위 NH농협은행을 1금고로, 2순위 광주은행을 2금고로 지정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DJ센터, 업무 무관 전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 교통약자센터, 자격미달 계약직 무기직 전환

### 광주시 감사위 적발 공기업·출연기관 채용비리

정부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던 인사·채용 관련 부당 행위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자체의 감사 결과는 과거 심심찮게 불거졌던 일부 단체장이나 정치권 등의 인사 청탁이나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밝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광주시감사위원회가 올해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 산하 공기업 등에서 전문계약직 채용 기준 부적정 등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난 2015년 수도권 마케팅을 총괄할 전임 계약직(나급)을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기준과는 달리 전시·컨벤션분야와 무관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을 합격시켰다가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차량 미터기 조작으로 정적 2~3개월을 받았던 계약직 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차량 미터기를 조작한 이들은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하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센터는 다수의 특징인에게 큰 특혜를 줬음에도 기관 경계에 그쳤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인사 규정상 우선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무기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2명을 곧바로 채용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기관은 특히 2015년 현직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2명을 정규직으로 뽑았다. 문제는 채용 심사를 한 인사위원이 채용 대상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했음에도 제척이나 기피 등을 하지 않고

채용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밖에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해 5명을 신규로 채용하면서 자격 기준을 임의대로 변경, 직원을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5·18기념재단도 지난 1월 기간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2개 분야는 응시생이 각 1명뿐이어서 재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고, 채용인원이 1명인 채용분야에서는 이를 어기고 2명을 뽑기도 했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연말까지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23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간다.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이나 검·경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시 일자리 공공부문 차중

### 주경남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시의회 주경남(민·서구) 의원은 6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실적 공공부문이 치우치고 민간부문에서는 실적이 못 미쳤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2015년 목표 1명4283명, 실적 1만7359명, 달성률 122% ▲2016년 목표 1만7254명, 실적 2만5497명, 달성률 148% ▲2017년 목표 2만3764명, 4월말 기준 실적 1만7844명으로 일자리 창출실적 합계 7만3514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은 2015년 달성률 94%, 2016년 달성률 86%에 그쳤다.

또 광주시가 발표한 일자리 실적과는 달리, 민선 6기 출범 당시인 2014년 7월 기준 고용률은 59.5%에서 올 9월 고용률은 58.6%로 0.9% 낮아졌고 실업률은 같은 기간 2.7%에서 2.9%로 0.2% 높아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전국학교 옥상 2500곳 설치확정·관광사 설치**

**시공 사례**  
광주광역시교육청 / 경상북도교육청 / 대전광역시교육청 / 서울 노원구청 / 운양동·송호동 / 주월동·성관여리마을 / 주월동·노스페이스마을 / 봉선동·반석마을빌딩 / 내방동·내방교회 / 중흥동·진미식당옥상 / 생촌동·원도식당옥상, 임이자전통김치, 0당구장건물, 힐스테이트옥상 / 화정동·노다지건물 / 목포·한가족식당, 순천·화이트옥상 / 월곡동·온누리마트 / 서양동·마음마을주유소 외 300곳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Hanwha Q CELLS**  
세계판매 1위 / 25년 출력보장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